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김정민(한국잡월드)†

이희수(중앙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취업 의사가 있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지역의 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464명을 대상으로 SPSS 25.0과 AMOS 2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주로 학생들로 한정되어 연구되어왔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 간의 영향관계 연구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관계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 고취를 위한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

* 본 논문은 김정민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한국잡월드 대리, email: jjongs@koreajobworld.or.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heesu@cau.ac.kr

논문투고: 2022.12.10. / 심사일자: 2022.12.21. / 게재확정일자: 2023.01.15.

I. 서론

개인의 서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 생애 동안 변화한다는 말처럼(Illeris, 2018), 사람은 생애전환기 과정에서 인생의 발달과업을 수행한다(황윤주, 이희수, 2015). 우리나라의 여성 상당수는 결혼과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몰입하게 되며(배나래, 2018), 이 시점에 이르러 생애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가족 구성원의 지지나 도움 없이는 사회활동 참여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병행하는데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김지경, 조유현, 2003; 이명희, 김현주, 2018).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보다 증가하였지만, 기혼 여성은 대개 육아와 가사사정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렵고 재취업이 되더라도 고용이탈 가능성이 다른 비교집단보다 높다(이시균, 2017). 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직장에서의 몰이해나 휴직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이무선, 2020). 기혼 여성은 경력단절을 회피하기 위하여 결혼,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박세은, 고선, 2018).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과 관련한 이슈가 주목받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상당수의 경력단절여성에게는 다시금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난다(오은진 외, 2008).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가계에 경제적 보탬이 되고 본인 커리어를 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삶의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내포한다(이보라 외, 2019).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립으로 인한 성취감을 획득하게 하며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 삶을 개척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진입하고자 하는 재취업욕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은 개인이 삶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실천적인 진로모색과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정이 바로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과거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나아가 경력단절여성의 진로발달과 관련해서도 연구되고 있다(김애심, 장진이, 2018; 유희정, 2015; 최유진, 손은정, 2016). 진로준비행동은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므로 경력단절여성이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김현정 외, 2018).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을 개념화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을 한 이후에 그 결정된 방향을 실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배을규 외, 2017).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나 진로결정과 같은 인지 및 태도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진로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김봉환, 김계현, 1997).

개인의 진로는 배경맥락적 요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진로목표와 진로행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혼 여성은 다양한 생애역할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계속해서 유지 관찰하기 어렵다(이수분, 이정희, 2010). 경력단절여성은 진로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도 및 진로정보 탐색 능력의 저하 등으로 자신감이 하락하게 된다. 또한, 자녀양육과 가사 등으로 인하여 다중 역할이 충돌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장서영 외, 2007). 이처럼 개인의 진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벽이 바로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다. 진로장벽은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나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인 요인이다(손은령, 2001).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자아실현, 양성평등의식, 성취 욕구 등 다양한데 특히 생계 및 가계 여유 등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다(구명숙, 홍상욱, 2005; 김선화, 2010; 이정희, 2014).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이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단절여성은 진로장벽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진로준비에 임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실제적인 진로행동 참여를 위해서는 진로장벽 인식을 해소하고 진로에 대한 의식과 성숙이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태용, 2008; 김민정, 2016; 이희정, 김금미, 2010). 반면 진로장벽 요인은 상황과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유의미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상이한 연구결과(김선중, 2005; 장이슬, 송병국, 2015)도 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는 다변적이어서 상호직선적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변인과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1994).

한편 여성의 일과 가정, 삶이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이며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있다(배을규 외, 2020; 서경희 외, 2015; 신연하, 이동명, 201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변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다(박지원, 1985; 신수정, 이인희, 201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인으로 제시되며(이수분, 박수홍, 2020),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진로장벽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으로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고경필, 고정리, 2018).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면 적극적으로 진로선택을 하고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유수복, 윤희미, 2014),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영향관계는 연구마다 상이하다(김동숙, 이영민, 2011; 김재형, 박성희, 2019; 김효진, 장운옥, 2011; 송현심, 홍혜영, 2010).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개인적 요소(인구통계학적 요소,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신연하, 이동명, 2017; 이수분, 이정희, 2017), 배우자 및 가족의 지원이나 배우자의 경제력, 기업의 복지제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분위기 등 환경적 지지 특성도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손영미, 박정열, 2016; 전혜진, 2016; 조동훈, 2016; 이수분, 서희정, 2022).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실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김옥, 2012; 김정은, 2020)이나 대학생(박한샘, 조화진, 2018)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발달의 관계에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장벽

경력(경력)은 개인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삶의 영역인 직업 세계에서 경험하는 성장과 발달의 공간이며, 사회적 맥락에서는 일과 직업의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고 사회의 여타 영역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다(진성미, 2013).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어진 것은 기혼여성들이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이정희, 2014).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승으로 경제활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여성의 일과 경력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저점이 되었다가 40대에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증가하는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육아(42.5%)와 결혼(27.5%), 임신·출산(21.3%) 순으로 나타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등과 비교하여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2018년도 OECD 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 84.5%, 스웨덴 81.2% 등으로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64.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4%에 그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비롯하여 취업과 승진, 고용의 유지와 일·가정의 양립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 및 상황을 통칭한다(이성식, 정철영, 2007).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 의지가 있지만 한 번 직장을 그만두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까지 여러 진로장벽과 마주하게 된다(문재선, 이정윤, 2019; 홍지선, 계은경, 2016). 진로장벽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성취도가 낮고 경력개발과정이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여성의 능력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이수분, 박수홍, 2020).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로장벽을 경험할 수 있으나 진로장벽에 대한 초기 논의들은 주로 여성의 진로발달과 같은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한 부정적 경험이나 사건을 통칭하는 의미로 연구되기 시작했다(손은령, 이순희, 2010; 최윤정, 김계현, 2007).

여성의 경우 가사 및 자녀양육, 직업인 등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므로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행동의 관계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탐색해야 한다(손은령, 김계현, 2002). 기혼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으며 특히 자녀가 7세 미만일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경력단절 위험이 높았고, 출산 직후 만 0세 자녀의 존재는 취업 후 경력단절 확률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세은, 고선, 2018).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기 보다는 개인이 사실과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한종임, 장유진, 2021).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개인차는 진로행동의 차이를 유발한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연구를 위해서는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조건인 진로장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2. 사회적 지지

사람은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은 개인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다(박지원, 1985). 여기서 긍정적 자원은 사랑이나 애정, 존중 등처럼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경제적 도움 등이 될 수도 있다(김남경, 2019). 사회적 지지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스트레스 속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효과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여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이다(서경희 외, 2015). 사람은 사회적 지지 체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가치 있는 활동에 종사하면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Lent, 2004).

사회적 지지는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계적인 상호작용이다(Kahn & Antonucci, 1980; 강정희, 2003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경우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게 되어 진로 및 직업탐색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김용준, 2021). 개인의 진로개발에서 부모 또는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인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박미경 외, 2008).

사회적 지지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진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배을규 외, 2020; 신수정, 이인희, 2018; 신연하, 이동명, 2018). 상당수의 경력단절여성은 가족과 주변인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게 된다(이보라 외, 2019). 기혼여성의 재취업에 있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과 주변의 지지적 환경이 기혼여성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가족의 설득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고(은혜경, 김창대, 2011),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Zimet 외(1988)가 개발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을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진로준비행동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력전환은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

온다. 전통적으로 경력전환은 개인의 직업상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역할의 실질적 변화를 피하는 행동이나 현재 수행하는 역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Louis, 1980). 대부분의 여성의 진로발달은 남성과 다르게 출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에 따라 육아와 일의 병행 갈등, 진로개발 의지의 부족, 전통적인 성역할 수용과정 등 다중 역할 갈등과 자아 성취 사이에서 진로의 지속 혹은 중단의 결정을 하게 되며, 불연속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최윤정, 김계현, 2007; Killy & Borgen, 2000).

기혼 여성의 노동은 가계와 노동시장이라는 상이한 두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전은주, 유홍준, 2009). 재취업을 결심한 경력단절여성은 실직 이후 다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성찰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되는데, 진로준비행동은 곧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실천이다(박재은 외, 2011).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가장 지향적인지 혹은 일 지향적인지 각각의 역할 지향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김언희, 김병석, 2017). 경력단절여성에게 있어서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4. 연구변인 간 관계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과 진로실행에 영향을 주는 맥락변인으로 언급되는 진로장벽은 개인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개발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희, 2015; 고태용, 2008; 유희정, 2015).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희정과 김금미(2010)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이 진로장벽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며 진로장벽이 개인의 진로 선택과 결정 등과 같은 행동적 결과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수분과 이정희(2010)의 연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은 내적 진로장벽보다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 등의 외적 진로장벽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진로장벽이 대체로 진로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지만 하위요인 중 고용의 제약 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행동에서 느끼는 불안이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는 연구(조은희, 문화진, 2019)도 있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방식이나 요인 간의 관계에 다른 요인이 투입될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London, 1997),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과 진로발달이 반드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다(Luzzo, 199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자원(Betz, 1989)으로, 진로장벽과 진로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고경필과 고정리(2018)는 경남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심리적, 환경적 진로장벽 모두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은희와 문화진(2019)은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모두 매개효과를 드러내어 정적인 유의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정은(2020)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과 학교적응과의 영향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감소되지 않으면 진로발달과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지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지지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서적 안정감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저해하게 되지만, 안정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개인은 긍정적 자아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여 실제적인 진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유수복, 윤혜미, 2014).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내적 동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박한샘, 조화진, 2018). 반면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결정에서 진로장벽이 크게 인식되면 사회적 지지가 지원으로서 간접적 역할은 수행하지만 진로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이한 연구결과도 있다(김동숙, 이영민, 2011). 이처럼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은 사회 속에서 결정되며, 개인의 진로 발달 또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장벽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Swanson et al.,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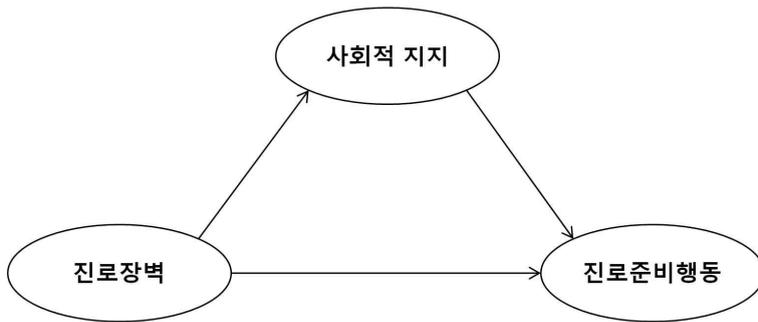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면 긍정적 자아를 발달시켜 능동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탐색하며 진로준비

행동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의 세 변인이 상관관계 혹은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이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 연구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을 감소하고 실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 변인 간 관계를 기반으로 설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채취업 의사가 있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지역의 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1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473부를 회수하였

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등 결측치가 있는 설문응답지 9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64부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가 전체 설문 응답자의 60.6%를 차지하였으며, 40대 113명(24.4%), 20대 52명(11.2%), 50대 15명(3.2%), 60대 이상 3명(0.6%)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394명(85.0%)은 20~30대로 파악되었다. 학력별 분포에서는 4년제 대졸이 256명(55.2%)으로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 146명(31.5%), 고졸 이하 41명(8.8%), 대학원(석사 졸) 21명(4.5%) 순으로 확인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자녀 수를 묻는 문항에는 자녀가 1명은 205명(44.2%), 자녀 2명은 153명(33.0%), 자녀 없음이 84명(18.1%), 자녀 3명이 22명(4.7%)순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가 223명(5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이 108명(23.3%)으로 나타나 막내 자녀의 학령이 초등학생 이하인 비율이 331명(73.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현황

항목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29세	52	11.2
	30-39세	281	60.6
	40-49세	113	24.4
	50-59세	15	3.2
	60세 이상	3	0.6
최종학력	고졸 이하	41	8.8
	전문대 졸	146	31.5
	4년제 대졸	256	55.2
	대학원(석사)	21	4.5
자녀 수	자녀 없음	84	18.1
	1명	205	44.2
	2명	153	33.0
	3명	22	4.7
막내 자녀의 학령	자녀 없음	84	18.1
	미취학 자녀	233	50.2
	초등학교에 재학 중	108	23.3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24	5.2
	대학 이상	15	3.2
경력단절기간	1년 미만	83	17.9
	1년-3년 미만	158	34.1
	3년-5년 미만	98	21.1
	5년-10년 미만	94	20.3
	10년 이상	31	6.7
경력단절사유	결혼	71	15.3
	임신 및 출산	169	36.4
	자녀양육 및 교육	127	27.4
	원하는 근무 조건의 직장(진로)을 찾지 못함	89	19.2
	기타	8	1.7
재취업을 위하여 학습에 참여한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81	17.5
	그렇지 않다	79	17.0
	보통이다	135	29.1
	참여하였다	127	27.4
	매우 참여하였다	42	9.1
전체		464	100.0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달성과 각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로 설문 문항 구성 및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종속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최종학력, 자녀 수, 막내 자녀의 학령, 경력단절기간, 경력단절사유, 재취업을 위하여 학습에 참여한 여부를 측정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 측정을 위해 손은령(2001)이 개발한 여자대학생용 진로장벽 검사를 최영숙(2004)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수정한 것을 이수분과 이정희(2010)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으로 진로장벽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내적요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4문항), 배우자에 대한 고려(3문항), 의사결정의 어려움(4문항), 준비 및 기술부족(3문항)의 네 가

지 요인으로 구분되며, 외적 요인은 차별(7문항), 자녀양육 환경(7문항), 고용의 제약(4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분과 이정희(2010)의 선행연구에서 종합 Cronbach α 계수는 .9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94로 판단기준 .50 이상에 부합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Zimet과 동료들(1988)이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형태로 개발한 다중척도(MSPSS)를 국내에서 박수영(201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가족(4문항), 친구(4문항), 중요한 타인(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수영(2016)의 선행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집된 자료의 Cronbach α 계수는 친구 .90, 중요한 타인 .88, 가족 .87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92로 판단기준 .50 이상에 부합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을 위해 김봉환(1997)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김형균(2003)이 인터넷의 발달과 상담센터를 고려하여 수정한 것을 이희정과 김금미(2010)가 경력단절여성에게 맞게 수정한 설문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도구구비활동(5문항), 정보수집활동(6문항), 목표달성활동(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희정과 김금미(2010)의 선행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 Cronbach α 계수는 .97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93으로 판단기준 .50 이상에 부합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SPSS 25.0 및 AMOS 25.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정규분포성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변인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검증

이 연구의 측정도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든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곽기영, 2019). 연구변인 간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hi^2(df=57)$ 값은 296.995($p<.001$)로 나

타났다. 하지만 χ^2 값은 모형의 복잡성과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RMSEA= .095로 양호한 편이었고, IFI= .950, TLI= .931, CFI= .949로 적합도 판단 기준을 상회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뢰도는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의 하위 관찰변인들 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b) 및 표준화 회귀계수(β), 표준오차(SE)와 기각률(C.R.),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 값을 바탕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측정변인의 내적신뢰도(Cronbach α) 검증결과 진로장벽이 .949, 사회적 지지는 .921, 진로준비행동은 .937로 모든 변수의 Cronbach α 가 .70 이상을 상회하므로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신뢰도(CR)는 진로장벽이 .917, 사회적 지지 .965, 진로준비행동 .935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의 종합신뢰도가 0.6 이상을 충족하여 측정모형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결과

잠재변인	관찰변인	b	β	SE	C.R.	AVE	CR	Cronbach α
진로장벽	실패에 대한 두려움	1.000	.621	-	-	.618	.917	.949
	의사결정의 어려움	1.034	.649	0.061	16.895			
	준비/기술 부족	1.048	.614	0.063	16.635			
	배우자에 대한 고려	1.112	.675	0.077	14.369			
	고용의 제약	1.189	.806	0.084	14.190			
	차별	1.439	.959	0.093	15.400			
	자녀양육환경	1.192	.816	0.083	14.318			
사회적 지지	가족	1.000	.917	-	-	.902	.965	.921
	친구	1.012	.895	0.034	30.048			
	중요한 타인	1.068	.922	0.033	31.979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1.000	.774	-	-	.829	.935	.937
	도구구비활동	1.496	.915	0.070	21.411			
	목표달성활동	1.437	.923	0.067	21.501			

타당도는 평가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도로 이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β) 검증결과, 진로장벽은 .614 ~ .959, 사회적 지지 .895 ~ .922, 진로준비행동 .774 ~ .923으로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변인 간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변인들 간에는 그 측정치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과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공값이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작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원표, 2017). 모든 변인이 상관계수제공 값보다 평균분산추출 값이 더 상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상관계수제공 ²		평균분산추출(AVE)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 .038	<	진로장벽 = .618
		진로준비행동 = .829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 = .046	<	진로장벽 = .618
		사회적 지지 = .902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 .095	<	사회적 지지 = .902
		진로준비행동 = .829

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인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설문 응답의 특성 및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왜도와 이상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첨도를 통해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

단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연구변인인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및 진로장벽이 모두 해당 범주에 분포하여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진로장벽	실패에 대한 두려움	2.92	0.91	-0.33	-0.66
	의사결정의 어려움	3.17	0.87	-0.42	-0.27
	준비 및 기술부족	3.05	0.93	-0.28	-0.51
	배우자에 대한 고려	3.01	0.90	-0.24	-0.51
	고용의 제약	3.58	0.81	-0.96	1.05
	차별	3.39	0.82	-0.91	0.74
	자녀양육 환경	3.55	0.80	-1.01	1.16
	전체	3.28	0.70	-1.02	1.20
사회적 지지	가족	3.61	0.71	-0.39	0.39
	친구	3.64	0.73	-0.54	0.63
	중요한 타인	3.69	0.75	-0.59	0.56
	전체	3.65	0.69	-0.58	0.81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3.35	0.74	-0.75	0.89
	도구구비활동	3.08	0.93	-0.47	-0.37
	목표달성활동	3.02	0.89	-0.43	-0.44
	전체	3.15	0.78	-0.55	0.07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인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Cohen(1992)의 기준에 따라 .10 ~ .30은 낮은 상관, .30 ~ .50은 중간 상관, .50 이상은 강한 상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측정변인	진로장벽	진로장벽 하위요인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 행동
		1	2	3	4	5	6	7		
사회적 지지	-.232***	-.271***	-.180***	-.262***	-.185***	-.125***	-.197***	-.123***	1	
진로준비 행동	-.138**	.047	-.014	-.021	.010	-.233***	-.175***	-.272***	.314***	1

** $p < .01$, *** $p < .001$

진로장벽 하위 1요인=실패에 대한 두려움, 2요인=의사결정의 어려움, 3요인=준비/기술부족, 4요인=배우자에 대한 고려, 5요인=고용의 제약, 6요인=차별, 7요인=자녀양육환경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은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r = -.232, p < .001$)와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r = -.232, p < .001$)은 중간 수준의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진로장벽과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r = -.138, p < .001$)은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r = .047$)’, ‘의사결정의 어려움($r = -.014$)’, ‘준비/기술부족($r = -.021$)’ ‘배우자에 대한 고려($r = .010$)’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이 진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진로행동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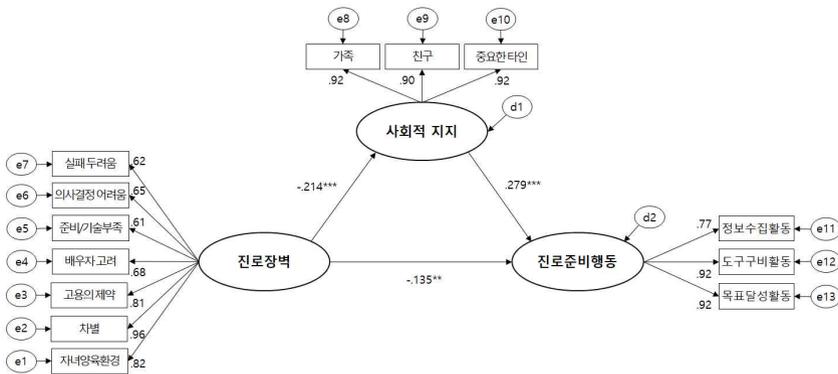
3.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종속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변인 간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도출된 결과는 우종필(2016)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용 기준에 부합하여 구조모형이 적합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연구변인 간의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적합도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chi^2(df)$	RMSEA	IFI	TLI	CFI
기준값	-	$\leq .10$	$\geq .90$	$\geq .80$	$\geq .80$
측정값	296.995(57)	.095	.950	.931	.949

다음으로 연구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잠재변인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7>과 같다.



[그림 2] 구조모형 경로분석결과

분석결과 첫째,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4, p < .001$). 진로장벽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5, p < .01$). 진로장벽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진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279, p < .001$). 즉,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장벽이 높은 경력단절여성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갖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을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7>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결과

구분		<i>b</i>	β	<i>SE</i>	C.R.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	-0.254	-.214	0.060	-4.259***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0.140	-.135	0.051	-2.723**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245	.279	0.044	5.581***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이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크기를 산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표집 횟수는 5,000회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직접효과는 매개변인이 설정된 상황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의미한다. 간접효과는 매개변인이 존재할 때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지칭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 총효과이다(배병렬, 2021).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진로장벽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직접효과($\beta = -.214, p < .001$)와 진로장벽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beta = -.135, p < .05$),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beta = .279, p < .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beta = -.060, p < .001$)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연구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결과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	-.214***		-.214***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135*	-.060***	-.195***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279***		.279***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부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유지에 외, 2019; 이정림, 조영아, 2017; 최현주, 정귀임, 2018)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부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강현희, 2015; 김민정, 2016; 김정은, 2020)를 뒷받침한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들의 정서나 행동적 측면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박미경 외, 2008; 조은희, 문화진, 2019). 따라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으면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저하시킨다. 또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계획 수립과 진로 선택 등의 진로준비활동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준비 및 기술부족, 배우자에 대한 고려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에서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선행연구(이상희, 2007; 장이슬, 송병국, 2015)를 뒷받침한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진로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생 전반에서 진로와 관련한 과업 수행 시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 진로선택을 더 잘 준비한다는 연구결과(Blustein, 1997)를 지지하며,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용준, 2021; 나태균, 문성원, 2012; 배을규 외, 2017)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일부 하위요인만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이숙자, 2019)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자아정체감 등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박미경 외, 2008)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실천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김애심, 장진이, 2018). 배우자의 정서적인 지지와 상사의 지지 등을 바탕으로 한 일·가정 균형감은 삶의 만족도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문재선, 이정윤, 2019).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이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과 같은 가까운 주변인으로부터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고취하여 진로행동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의 부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살핀 선행연구(고경필, 고정리, 2018; 김정은, 2020)를 지지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지원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진로장벽에 대한 부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재취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게 한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의 적극적인 지지는 경력단절여성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긍정적인 자원이다.

이상의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관계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경력단절로 인한 전문 인력의 누수 방지, 고령화시대의 노동력 부족 해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여성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매우 필요하다(김정희, 변상해, 2016).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은 진로장벽 요인 중 고용의 제약, 자녀양육환경, 차별 순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실제적이고 섬세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력단절여성이 함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같은 처지의 경력단절여성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사한 경험 속에 있는 다른

경력단절여성과 서로 상호간의 지지자가 되면서 심리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김나경, 이경화, 2020; 장서영, 2008).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간의 사회적·심리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지지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은 다시 사회에 재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를 완화시키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친밀하게 감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망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재취업을 위하여 학습에 참여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습에 참여한 비율이 304명(65.6%)으로 실제적인 재취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초기에 80% 이상이 재취업 의지를 보이지만, 5년 이상 경력단절이 장기화된 여성의 비중은 61.2%에 이르러 초기 의지와는 다르게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오은진 외, 2016). 이 연구에서도 경력단절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9명(73.1%)에 육박하여 경력단절 초기에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경력단절여성의 상황과 재취업욕구에 맞는 재취업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여기서 직업교육은 직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 진로의 탐색, 직업기술훈련과 구직지원시스템까지 포함한 확장된 의미이다(신연하, 이동명, 2017). 외국의 경우, 미국은 지역 대학에서 전문화된 직업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재취업 희망 시대학의 시간제를 등록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독일은 재취업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박노동, 2011).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과 상담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와 현장에서의 괴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김연희, 김병석, 2017).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은 재취업욕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정희, 변상해, 2016), 진로상담과 취업교육을 받은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된다(김수정, 이인희, 2015).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직업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하기 쉽다(신수정, 이인희, 2018).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와 재취업을 방해하는 현실을 일치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경력단절여성이 자신의 현재 수준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손영미, 박정열, 2016).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이 실천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재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맥

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상담과 맞춤형 직무소양교육과 취업대비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재취업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 및 논의를 종합하고,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전국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제한 없이 표집 하여 표집대상이 지역별, 연령별로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 연구를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연령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확장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도구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주관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문 응답의 일관성과 객관성의 담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심층 인터뷰나 질적 연구 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와 관련한 변인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국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인들을 다각도로 탐색하여 실제적인 진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변인을 확장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희(2003).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강현희(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고정필, 고정리(2018). 대학생이 인식한 심리적 및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439-468.
- 고태용(2008).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곽기영(2019). R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절차 및 방법. **지식경영연구**, 20(1), 1-26.
- 구명숙, 홍상욱(2005). 기혼여성의 재취업 구조에 관한 사례연구: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 참가자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23(3), 153-167.
- 김나경, 이경화(2020). 경력단절여성의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사회연결망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와 비교. **평생교육·HRD연구**, 16(3), 1-29.
- 김남경(2019). 초등학교의 직업가치관과 사회적 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동숙, 이영민(2011).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 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역량개발학습연구**, 6(4), 21-39.
- 김민정(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선화(2010). 부산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 **젠더와 사회**, 21, 95-131.
- 김수정, 이인희(2015). 미용교육이 재취업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7), 4432-4440.
- 김애심, 장진이(2018).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525-548.
- 김언희, 김병석(2017). 경력단절 여성의 역할지향성에 따른 직업가치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학력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1), 173-193.
- 김옥(2012).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포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용준(2021).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8(1), 21-42.
- 김원표(2017). **다시 쓰는 통계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서울: 와이즈인컴퍼니.
- 김재형, 박성희(2019). 경력단절자의 성격특성이 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자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함께. **한국창업학회지**, 14(6), 327-353.
- 김정은(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21-37.
- 김정희, 변상해(2016). 직업교육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 재취업욕구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237-246.
- 김지경, 조유현(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3), 181-207.
- 김현정, 이순화, 천성문(2018).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지역과 세계**, 42(1), 153-174.
- 김형균(200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국제상당대학원.
- 김효진, 장운옥(2011).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2.
- 나태균, 문성원(2012). 외식조리 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충청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8(2), 106-117.
- 문재선, 이정윤(2019). 기혼직장여성들의 진로지속동기와 사회적 지지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일-가정 균형감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 **상담학연구**, 20(1), 121-141.

- 박노동(2011). **대전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실태분석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립(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세은, 고선(2018). 자녀 연령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경제발전연구**, 24(4), 23-39.
- 박수영(2016). 공학계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한샘, 조화진(2018).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동기,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3), 591-616.
- 배나래(2018).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268-275.
- 배병렬(2021). **SPSS/PROCES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청람.
- 배을규, 김대영, 이윤진, 강선희(2020).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 하향 취업 의향과 적극적 구직 행동의 관계에 대한 경력 계획의 조절된 매개효과. **Andragogy Today**, 23(1), 1-29.
- 배을규, 이호연, 김대영(2017).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교육문화연구**, 23(5), 115-134.
- 서경희, 박원준, 심지현(2015).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5(4), 57-88.
- 손영미, 박정열(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예측요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0(2), 165-184.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손은령, 김계현(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손은령, 이순희(2010). 국내 진로장벽 검사 개발 동향과 후속연구과제. **진로교육연구**, 23(3), 31-45.

- 송현심, 홍혜영(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수정, 이인희(2018). 재취업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422-432.
- 신연하, 이동명(2017). 경력단절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310-323.
- 신연하, 이동명(2018). 사회적 지지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138-152.
- 여성가족부(2020).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1.09.05.). [웹페이지].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 오은진, 박정정,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 서울: 여성부.
- 오은진, 박정정, 장희영(201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 경력단절 예방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종필(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레아카데미.
- 유수복, 윤희미(2014).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3), 405-421.
- 유지애, 조은애, 이아라(2019).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973-994.
- 유희정(2015).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7(2), 261-280.
- 은혜경, 김창대(2011).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진로유연성 탐색: 재취업 성공 기혼여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2), 651-671.
- 이명희, 김현주(201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역할전환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3), 141-168.
- 이무선(20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제언. **인문 사회과학연구**, 28(1), 113-128.
- 이보라, 송수진, 지수인, 강정훈(201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6(1), 177-199.
- 이상희(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 이성식, 정철영(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수분, 박수홍(2020).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행동 척도개발 및 유형탐색: 고용가능성,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지각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6(3), 31-62.
- 이수분, 서희정(2022).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평생교육·HRD 연구**, 18(3), 33-57.
- 이수분, 이정희(2010).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3), 187-208.
- 이수분, 이정희(2017).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계획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6(2), 1-17.
- 이숙자(2019).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4(12), 109-117.
- 이시균(2017).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구조 및 고용안정성 분석. **여성연구논총**, 20, 75-100.
- 이정림, 조영아(2017).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 소외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90-102.
- 이정희(2014). 일-가족 양립 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 86(1), 281-324.
- 이희정, 김금미(2010).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장서영(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4, 79-104.
- 장서영, 오민홍, 은혜경, 최미정, 정미나, 우영주(2007). (2007)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개발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장이슬, 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 전은주, 유홍준(2009). 첫 자녀 출산 후 여성의 취업여부 및 직장복귀에 관한 결정 요인. **한국사회**, 10(1), 183-223.

- 전혜진(2016). 경력단절의 미시적 요인 분석: 여성의 사직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복지 및 배우자 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39(3), 107-137.
- 조동훈(2016).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휴직 제도와의 관계. **노동경제논집**, 39(4), 81-100.
- 조은희, 문화진(2019).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이중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693-716.
- 진성미(2013). 경력 자본과 경력 아비투스: 경력과 일터학습. **평생학습사회**, 9(3), 73-92.
- 최영숙(2004). 진로장벽에 직면한 직업복귀 여성의 진로타협 유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유진, 손은정(2016).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749-768.
- 최윤정, 김계현(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Concept Mapping) 연구: 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현주, 정귀임(2018). 취업준비 간호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간호행정학회지**, 24(1), 61-72.
- 한종임, 장유진(2021).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진로탄력성과 진로타협 경향성의 조절된 매개모형. **진로교육연구**, 34(2), 121-142.
- 홍지선, 계은경(2016). 여성 진로장벽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진로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3), 225-250.
- 황윤주, 이희수(2015). 두 50대 여성의 전환적 생애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옷음강사로 제2의 인생 살기. **평생학습사회**, 11(2), 215-243.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1), 136-144.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60-274.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Illeris, K. (2018).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Learning theories in their own words) (2nd ed.). In M. Tennant (Ed.), *The life history of the self*

(pp. 166-178). Oxford, UK: Routledge.

- Killy, K. E., & Borgen, W. A. (2000). Self-confidence and the re-entry experience for North America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2*(2), 119-130.
- Lee, J. Y.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OH.
- Lent, R. W. (2004).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82-509.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ouis, M. R. (1980). Career transitions: Varieties and common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3), 329-340.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Swanson, J. L., Daniel,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219-244.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Abstract

The Effect of Career Interrupted Women's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im, Jeong Min (Korea JobWorld)

Lee, Hee Su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areer interrupted women an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order to verify these question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464 career interrupted women.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barrier perceived by career interrupted wome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support for career-interrupted wome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a parameter,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areer interrupted wome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practical support such as finding quality jobs, expanding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prepar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is needed to resolve career barriers for women with career breaks.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human and material network system to expand the social support network for career-interrupted wome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employment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hat suit the situation and re-employment needs of career-interrupted women so that career-interrupted women can establish practical career plans and prepare for re-employment.

keywords: career interrupted women,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